외래어와 외국어, 그리고 국어

김종덕
연세대학교

1. 들어가는 말

외래어와 외국어를 둘러싼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고찰되고 연구되어 왔으나 아직도 외래어와 외국어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들어오는 외래어와 외국어의 오용 및 남용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논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외래어의 개념은 다음 장에서 논의하겠거니와 일단, 이 글에서는 한자어와 귀화어[1]('고무, 부처, 담배, 고추, 절, 붓, 먹[2]' 등과 같이 더 이상 외국어에서 온 것이라는 인식이 없는 단어)는 논의에서 배제하기로 한다.

2. 외래어와 외국어

2.1. 외래어의 개념

외래어는 '외국어에서 기원한 국어'(임동훈, 1996:41)이다. 외국어가 국어로 되려면 의당 '국어의 일부로 받아들여진 말'(정희원, 2004:5)이어야 하고

1) 김민수(1973) 참조.
2) 열거된 단어들 중 몇몇의 어원 및 한국어로의 정착 과정은 임홍빈(1996)에 제시되어 있다.

그 잣대로는 '한국어화(Koreanization)되었느냐가 중요한 기준'(김하수, 1999:251)이다. 그러나 '국어의 일부로 받아들여진 말, 한국어화'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인지적인 작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객관적인 기준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틀림없는 외래어[3]가 아닌 외래어 언저리에 있는 단어들은 외국어와의 구분이 쉽지 않은 것이다.

2.2. 외래어는 한국어이고 외국어는 한국어가 아니다.

'외국어에서 기원한 국어의 일부로 받아들여진 한국어화된 단어'가 외래어라면 그것은 고유어, 한자어와 마찬가지로 우리말의 중요 요소임은 명백하다. 임동훈(1996:41)에서는 "외래어는 외국어에서 기원하였다는 점에서 고유어나 한자어와 다른 특수성을 보이기도 하나, 이러한 특수성이 외래어의 국어 지위를 흔들지는 않는다."라고 하였다. 즉, 외래어는 한국어다.

'이랏샤이마세(일본어), 봉수와(프랑스어), 차오(이탈리아어)' 등은 명백한 외국어이다. 해당 언어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위크 포인트, 텐 이얼즈 올드, 트러스트 미'[4]도 마찬가지이다. 영어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과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즉, 외국어는 한국어가 아니다. 송철의(1997:4)에서도 "외래어는 고유어와 함께 자국어의 일부이지만 외국어는 자국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5]"라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외래어를 쓰지 말고 우리말을 사용하자."라는 주장은 틀렸다.

---

3) '버스, 택시, 뉴스, 라디오, 텔레비전' 등은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누구나 외래어로 인정할 것이다.

4) 모두 방송 드라마에서 사용된 예(조민하·홍종성, 2015:46)이다.

5) 그러나 바로 뒤에 "실제의 문제에 들어가면 어디까지가 외래어이고 어디까지가 외국어인지를 구별해 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덧붙이고 있다.

2.3. 외래어와 준외래어

외래어와 외국어 중간 언저리에 있는 단어들은 골치가 아프다. '모바일 뱅킹, 플레잉 코치, 올 누드, 오픈카, 오디션, 애드리브, 로브스터'를 보자. 분명히 외국어에서 온 말들인데 어떤 것은 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것은 전혀 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사람마다 조금씩 친밀도가 다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일단 준외래어라 하자. 준외래어는 아직 한국어는 아니나, 완전히 한국어화된다면 외래어라 할 만한 단어들로서 '준외국어 안에 있는, 동화 중인 외래어'(김슬옹, 2008:72)와 비슷하나, '동화 중'은 시간이 흐르면 완전 동화가 된다는 뜻인데, 준외래어는 한국어의 단어 목록에서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동화 중인 외래어'와 다르다.

3. 외래어와 외국어의 오·남용

3.1. 오용과 남용

오용은 잘못 쓰는 것이고 남용은 함부로 마구 쓰는 것이다. '책'을 '짹' 혹은 '잭'이라고 하는 것은 '책'이라는 규범에 어긋난 잘못된 사용, 즉 오용으로서 앞뒤 문맥으로도 의미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의사소통에 실패할 것이다. '더우기'를 '더욱이'로 썼다면 비록 의사소통은 될 것이나 규범에 어긋나므로 쓰기 측면에서의 오용[6]이다. 오용이란 의사소통의 성공·실패 여부에 상관없이 규범에 어긋남을 의미하며, 오용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규범이 필요하다.

---

6) '깍두기-깎두기-깍둑이, 설거지-설겆이, 숟가락-숫가락' 등도 마찬가지이다.

3.2. 외래어의 오용

외래어 표기법이라는 규정에 맞지 않는 틀린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오용이다. 예를 들어, '로봇'은 올바른 외래어이지만 '로보트'라고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것은 그 자체가 오용이다. 비슷한 예로 '컴퓨터'를 '컴퓨타'라고 하는 것도 역시 오용이다. 그런데 오용임에도 불구하고, '로봇-로보트, 컴퓨터-컴퓨타'의 대체는 의사소통은 될 것이다. 또, '초콜릿'이 아닌 '초코레토' 혹은 '쪼꼬레또'를 구사하는 것도 역시 오용이고 아마도 의사소통은 될 것이나 말하는 이는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게 될 것이다. '와인빠'가 '외래어의 오용'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려면 '와인빠'에 해당하는 표준 표기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외국어를 사용한 결과가 되므로 외래어의 오용에서는 벗어난다. 이렇게 오용의 대상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에 대칭되는 표준 외래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표준 외래어는 규정에 의해서 외국어가 아니라는 사실과 그 표기가 표준 표기임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런데 어떤 어휘가 외국어인지 외래어인지 명확히 가르는 규정은 아직 없다. 어떤 단어가 외래어로 정착되었는지를 권위 있는 기관에서 지정해 주어야 하는데, 외래어에 관련된 국립국어원의 표준어 사정 원칙 1장 2항을 보면 외래어는 따로 사정하기로 되어 있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따로 사정한 적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언어 사용자들은 국립국어원에서 출간한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사전)을 참조할 수밖에 없다. 일단, 표준사전에 등재된 단어라면 '외국어, 준외래어, 외래어' 가운데, 외래어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데 표준사전에는 '로보트'를 '→[7] 로봇'으로 기술하고 있는바

7) ≪표준국어대사전≫ 2008년도 개정판부터 그 전에 쓰던 비표준어는 '~의 잘못'이라는 기술을 피하고 대신 화살표(→)를 사용하고 있다(최혜원 2011:80). 비표준어가 잘못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에서는 벗어났으나 여전히 화살표는 그 표제어가 비표준어임을 분명히 나타낸다.

‘로보트’는 비표준어이고 ‘로봇’이 표준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8]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표준사전에 올라 있는 외래어 가운데 표제어의 뜻풀이 부분에 ‘→’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것은 모두 표준 외래어[9]로 인정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근 연구를 봐도, 이은경(2015:406)에 “표준사전에 실린 외래어는 모두 표준 외래어로 보아야 한다(차재은, 2007:370; 각주 13).”를 인용하면서 그 의견에 동의한다고 하였고, 조민아·홍종선(2015:33)에서도 “외래어와 외국어의 기준은 ≪표준국어대사전≫의 등재 여부로 판별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는 이론과 다르다. 표준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화살표가 아닌 멀쩡한 뜻풀이가 있는 단어들 가운데, ‘다라이[10], 빠꾸[11]’ 등은 ‘버스, 택시, 라디오’와 동급의 표준 외래어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12]. 표준사전에서는 ‘우동→가락국수, 벤또→도시락, 빠다→버터, 쓰리→소매치기, 빤쓰→팬티, 쓰메키리→손톱깎이, 사시미→생선회’로 되어 있으나, ‘다라이, 빠꾸’는 뜻풀이와 함께 순화어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우동’은 표준 외래어가 아니고 ‘빠꾸’는 표준 외래어라는 뜻인데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표준 외래어라는 개념이다. 표준어에 대한 대칭적인 개념으로 방언을 들 수 있는데, 외래어에는 표준어와 방언의 대립을 생각하기 힘들며 그러므로 표준 외래어라고 해서 방언 외래어[13]가 따로 있다는 뜻은 아니다.

---

8) 위에 예를 든 ‘더우기’도 ‘→더욱이’로 되어 있고 표준어는 ‘더욱이’로 인정된다.

9) 표준 외래어가 모두 표준사전에 등재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사전에 위의 조건에 맞는 것은 표준 외래어로 인정해야 한다.

10) ‘금속이나 경질 비닐 따위로 만든, 아가리가 넓게 벌어진 둥글넓적한 그릇’이 표준사전에서의 뜻풀이이다.

11)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1) 차량 같은 것을 뒤로 물러가게 함 2) 물건을 받지 않고 되돌려 보냄.

12) 박동근(2016:93)에는 “뜻풀이에 잘못이나 비표준어라는 정보가 없으나 모두 표준어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고 있다.

13) 방언에서 자생적인 외래어가 있다거나 어떤 지역에만 특이하게 유입되어 저장되어 있는 외래어 혹은 어떤 방언의 영향으로 어형, 즉 발음이 특이하게 변형된 외래어가 있다면 방언

3.3. 외래어의 남용

외래어의 남용에 이르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버스, 택시, 컴퓨터, 인터넷' 같은 외래어는 아무리 많이 여러 번 사용해도 적절한 경우라면 남용이 아니다. 적절하지 않게 마구 사용하는 남용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를 막론하고 용납되지 않는데 굳이 그동안 외래어의 남용만 문제가 된 것은 준외래어 혹은 외국어의 적절치 않은 사용을 외래어의 남용이라 취급했기 때문이다. 외래어와 외국어의 구분이 올바로 되기만 한다면 외래어는 오히려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 어려운 한자어도 굳이 배우고, 한쪽 귀퉁이에 있어서 보이지도 않는 고유어도 굳이 찾아내서 사용을 권장하는 마당에 외래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외래어로 인정된 어휘가 어려워서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외래어의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어휘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즉, 남용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더 가르치고 더 배워야 한다.

그러나 공공을 대상으로 너무 어려운 외래어를 마구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너무 어려운 외래어라 한 것은 일반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 전문 용어로서의 외래어(이하 '외래어 전문 용어')를 뜻한다. 예를 들어, 의사들끼리의 의사소통 장면이라면 외래어 전문 용어를 사용하든 외국어로 대화를 하든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그런 지식을 지니지 못한 환자 혹은 대중들을 향해서는 외래어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역시 외래어의 문제가 아니다. 전문 용어의 문제이다. '캔서'는 외래어이니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악성종양'은 외래어가 아니므로 사용해도 좋은 것이 아니다. 둘 다 대중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암'으로 순화[14]해서 전달해야 한다.

외래어라 이름 붙일 수 있다.

14) 김수업(2007:101)에서는 토박이말로 전문 용어를 가다듬고 길들이기를 강조했으나 토박이말, 즉 고유어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알려진 단어라면 한자어라도 동원해서 전문 용어의 순화어로 사용해야 한다. 표준사전에 제시된 순화어들이 모두 토박이말만은 아니다.

3.4. 외국어의 오용과 남용

외국어의 오용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 외국어를 제대로 하든 제멋대로 오용을 하든 그것은 한국어와 전혀 상관없다. 그런데 남용 문제와 엇물려서는 대중을 대상으로 한다면 외국어는 남용은커녕 한 마디도 용납될 수 없다. 왜냐하면 대중 가운데는 그 외국어를 모르는 다수가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연설 안에 몽고어 혹은 모잠비크어가 함부로 마구 섞여 있다고 생각해 보라. 단 한 마디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될 것이다. 반면 개인적인 대화나 편지 등의 글에서는 둘 사이의 관계에 맞춰 한국어가 아닌 어떤 언어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든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국어가 능숙한 미국 친구를 만나면 중국어로 얘기해도 괜찮고 영어로 얘기해도 된다. 그때에도 한국어로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은 억지일 뿐이다. 심지어 대학 안에서는 영어 수업을 권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외국어의 남용을 부추기는 한 가지 중요하고 큰 문제가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몇 번만 두드리면 일반 언어 사용자들도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국립국어원 누리집[15]의 외래어 표기법의 용례 찾기 및 규정 보기에 나오는 용례 중에는 완전히 외국어인 단어들이 그렇지 않은 단어들보다 훨씬 더 많다. 이는 물론 외래어 표기법의 대상이 '현재 우리말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어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외국어 인명, 지명, 그리고 앞으로 우리말에 들어올 수 있는'(신형욱, 1996:142) 예비 외래어들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는 있으나, 분명히 국립국어원에서 내놓은 외래어 표기법 안에 있는 단어들이므로 마음껏 외래어로 사용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 2001년에 국립국어원에서 출간된 ≪언론 외래어 순화 자료집≫(담당 연구원: 최용기) 안에는 외래어와 외국어가 마구 섞여 있는데 그것들을 모두 외래어로 용인한다면 결국, 외국어를 외래어로 사용하도록 조장하

15) 국립국어원 누리집(홈페이지) 주소는 'www.korean.go.kr'이다.

는 결과가 된다. 국립국어원에서 외래어와 외국어의 구분이 확실해야 외국어 사용을 자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외래어와 외국어가 분명히 구분됐을 때, 외래어가 적절한 경우에 사용되었는데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하는 이의 잘못이 아니다. 말 듣는 이의 배움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어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에 실패한 경우라면 완전히 말하는 이의 잘못이다.

4. 외래어 오용 방지를 위한 세 가지 방안

4.1. 복수 표준어 확장

2011년 8월 31일 '짜장면'이 '자장면'과 함께 복수 표준어로 확정[16]되었다. 그 전에는 '자장면'만 표준어였기 때문에 '짜장면'이라고 말을 하든 표기를 하든 모두 외래어의 오용으로 취급되었으나 그 조치 이후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짜장면'을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짜장면만 그런 것이 아니다. '카페'의 오용인 /까페/가 92%[17](차재은, 2007:384), '사인, 샌드위치, 선글라스'의 어두음 'ㅅ'의 경음 발음이 90% 이상(최혜원, 2002:18-19), '나레이션(내레이션), 스탭(스태프), 캐비넨(캐비닛)(이상,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올바른 표기)'의 발음이 90% 이상(최혜원, 2001:46) 실현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면 역시 오용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90% 이상 실현되는 오용 표기뿐 아니라, '로봇-로보트[18]'도 복수 표준어로 허용해서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오해의 여지가 생기는

16) 39개의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는 안건이 국어심의회에서 통과되었고 그 안에 짜장면이 들어 있다.

17) 차재은(2007:384)에는 82%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92%의 오타라는 것을 한명숙(2016:232) 각주 25에서 밝히고 있다.

18) 둘 다 약 50%씩 실현된다고 생각하자.

가? 의사소통에 문제만 생기지 않는다면 길지 않은 기간 여러 경로로 들어오는 외래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로보트가-로봇이, 로보트를-로봇을, 로보트에게-로봇에게' 등을 모두 허용한다면, '로보트척척보일러'를 '로봇척척보일러'로 고치라는 시정 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 '로봇학, 로봇 지능' 등과 같은 외래어 전문 용어는 고유의 사용 영역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반드시 표기를 일치해야 한다면 그 안에서 내규를 정하면 된다. 굳이 전 국민 모두가 '로보트'가 아닌 '로봇'이 올바른 표기임을 알고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복수 표준어를 인정한다는 것은 규정의 존재 가치를 희미하게 하는 처사이다. 규정은 규정대로 정해 놓고 복수 표준어라는 예외는 그것대로 인정한다면 자연스럽게 규정의 개정 및 보완보다는 일단, 복수 표준어 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복수 표준어의 숫자가 마구 늘어난다면 물론 외래어의 오용이라는 면에서는 숨통이 트일 수 있으나, 외래어 표기법이라는 성문화된 규정의 권위는 사정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또, 실태 조사 후 과연 몇 %의 사용 빈도부터 복수 표준어로 인정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복수 표준어 기준 설정[19]의 가장 큰 어려움이다. 예를 들어 90%의 사용 빈도부터 기존의 표준어와 함께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다고 의견이 모아진다고 하자. 그러나 이렇게 획일적인 기준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팸플릿(표준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나 외래어이기 때문에 발음이 지정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ㅅ'의 어말종성 발음이 적용된 [팸플린]을 표준 발음이라 하자.)'의 경우, 실태 조사에[20] 의하면 365명의 응답자 중 /팜플렌/이 199명(54.5%), 표준 발음이 29명(7.9%)이었고 나머지 37.6%는 무려 9개 발음이 조금씩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54.5%의

19) 최혜원(2011:91)에서는 사전에서의 복수 표준어를 반영하기 위하여 "어문 규정의 개정을 통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룬 표기형을 사전에 올리는 방법을 십분 활용하였다."라고 하였는데 거기서 사회적 합의가 어떤 경로를 거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20) 최혜원(2001:55)에 나온 '팸플릿'의 발음 실태 조사 결과이다.

/팜플렌/과 현행 표준 표기 발음 7.9%만으로 사용 빈도 비율을 보면 /팜플렌/이 87.3%를 차지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까페/(92%)와 별 차이가 없다. 이처럼, 복수 표준어를 확장하려면 정밀한 실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후 몇 퍼센트의 사용 빈도를 현행 표준어와 함께 복수 표준어로 결정할 기준으로 세울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4.2. 외래어 표기법의 폐지

외래어의 오용을 막기 위한 가장 급진적이고 완벽한 방안은 전문가들이 만든 성문화된 외래어 표기법을 폐지하는 것이다. '언어 정책가의 인위적인 조어와는 상관없이 물결의 흐름과 같이 대중의 언어생활은 흘러가는 것'(강신항, 2004:57)이므로 성문화된 규범을 폐지하면 더 이상 규정에 의한 표준 외래어는 없어질 테고 자연스럽게 '뻐스'라고 말을 하든 글을 쓰든 적절하게 의사소통이 된다면 외래어의 오용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4.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래어의 복수 표준어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외래어 표기법이 권위를 잃어버렸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규정이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르면 된다. 그러나 '[콩트]가 원음에 가까운지 [꽁트]가 원음에 가까운지 판단하기 어려워서 '콩트'를 선택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김슬옹, 2008:74-75) 획일적으로 편하게 하고자 '콩트'로 했다면 게다가 그것이 원음과 상당히 차이가 있으며 더 더해서 누가 봐도(들어도?) 원음에 가까운 '꽁트'라는 표기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 규정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또 규정에 의해 표기한 '사인(sign)'과 '시너(thinner)'의 규정에 의한 발음인 '[사인]은 사인(死因)으로, [시너]는 신어(新語)로 영락없이 오해하게 된다'(배주채, 2015:57)면 그리고 동시에 그 표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음이

원음과 너무 멀다면 그 규정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외래어 표기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언어의 기본적인 질서와 관이 주도한 획일적인 언어 규범의 충돌이다. 획일적인 규정에 의해서 언어 현실이 완전히 부정되어 버리는 예는 '불도그'에서 찾을 수 있다. 'dog'의 표준 외래어는 "어말과 모든 자음 앞에 오는 유성 파열음은 '으'를 붙여 적는다."[21]라는 규정에 의해서 '도그'가 되고 같은 규정으로 'bulldog'은/는 '불도그'가 된 것인데, 최혜원(2001:49)의 일반인 발음 실태 조사에 의하면, 'bulldog'의 발음으로 14개의 서로 다른 응답[22]이 나왔으나 정작 '불도그'라는 발음은 전혀 없었다. 결국, '불도그'라는 표기는 현실을 외면한 채 규정만을 쫓은 결과임이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런 제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독'이라는 동일한 응답이 359명 가운데 296명(82.5%)이 나왔으며 심지어 20대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분포[23]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4.1.에서 언급한 90% 이상의 분포를 보인 틀린 발음[24](/까페/, /싸인/, /샌드위치/, /썬글라스/, /나레이션/, /스탭/, /캐비넬/)을 보아도 언중들의 "외래어 발음이 어느 정도 하나의 발음으로 정형화(고정화)되어 가고 있다."(한명숙, 2016:233)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이니 언어의 규범을 언어 사용자에게 돌려준다면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정착될 것이다.

외래어 표기법을 폐기하기에는 현재 있는 표준사전의 내용이 불충분하니 시기상조라고 하는 주장은 외래어 표기법의 폐지에 반대를 하는 주장이 아니므로 시간이 흘러 제대로 된 사전이 구비된다면 사라질 것이다.

---

21) 외래어 표기법 표기 세칙 영어 제2항 유성 파열음([b], [d], [g])

22) 불독, 불덕, 불똑, 불도끄, 불루독, 부르독, 부르덕, 부루독, 부르도그, 부르도크, 부르도끄, 부루도크, 부루도끄, 부루도꾸

23) '20대 71명, 30대 77명, 40대 63명, 50대 58명, 60대 27명'으로서 다른 응답의 어떤 세대도 '불독'보다 많은 응답은 없다.

24) 외래어 표기법에 의한 표기와 달리 발음한 것을 틀린 발음이라 하였다.

4.3. 외래어 표기법의 규정 완화

외래어 표기법의 완전한 폐기가 현재 여건상 곤란하다면 그 규정을 어느 정도 완화하여 외래어의 오용을 방지하는 방안도 있다. 복수 표준어를 허용한다는 것은 단어 차원에서 외래어의 오용을 줄이는 것이고, 규정을 완화하는 방지 방안은 어떤 범주 안에 있는 해당 단어들의 오용을 모두 방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두 경음 표기를 허용하는 것이다. '짜장면'도 허용한 마당에 '꽁트, 쎈터, 꼴키퍼, 땜, 쌘드위치' 등을 허용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단어 끝음절에 'ㅓ'와 'ㅏ'를 모두 허용하면 '센터/센타, 디지털/디지탈, 센티멘털/센티멘탈, 뮤지컬/뮤지칼, 웨이터/웨이타'의 갈등이 해소된다. 'ㅖ'와 'ㅗ'의 규정을 완화하면 '설루션/솔루션, 세컨드/세콘드, 컴퓨터/콤퓨터'에서 비롯되는 오용을 방지할 수 있다. 또 '메시지/메세지, 소시지/소세지'의 오용 분쟁도 'ㅣ'와 'ㅖ'의 규정 완화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의 완화는 '기타(guitar)'를 '기터'로 써도 된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즉, 규정의 완화로 인해 잘못된 예가 과잉 생성될 수 있다는 염려이다. 그러나 언어는 그렇게 이론적인 것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규정이 완화된다고 해도 일상생활에서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억지 단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설루션(solution)-솔루션'을 보자. 현행 규정으로는 '설루션'은 올바른 표기이고 '솔루션'은 틀린 표기이다. 그런데 현재 표기 실태를 보면 '솔루션'이 압도적이다. 이런 추세라면 현재 표준 표기로 되어 있는 '설루션'은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그러나 그 영향으로 '세콘드, 콤퓨터'가 세력을 얻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와 '컴퓨타'가 두루 쓰이는 것, '설루션, 세컨드'가 공존하는 것, 그리고 절대로 '기터'가 생성될 리 없다는 것은 모두 현실 언어이다. 즉, 엄격한 규정을 통해 언어생활을 통제할 것이 아니라, 규정을 완화하여 오용이 줄어드는 언어생활로 유도하되 그 규정 안에서 외래어의 표기와 발음이 정리되는 과정은 일반 언어 사용자에게 맡기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계속 규정을 완화해 나가다 보면 결국 외래어 표기법에는 완화 규정만 가득 차게 될지도 모른다. 설사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해도 완화 규정이 많아질수록 외래어 표기법이라는 규정 자체의 존재 가치가 상실될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외래어 표기법의 폐지와 뜻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새로운 사전을 통한 외래어의 규범화

외래어 표기법의 폐지는 사전을 통한 규범화라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사실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어문 규정 없이 사전에 의존해 개별 어휘의 규범을 지켜가는 언어생활이 일반화되어 있다. (중략) 일반 언중은 어휘의 규범을 공통의 교육 과정과 교과서에 의한 학교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을 통해 확인하곤 한다."(조태린, 2016:80)라는 내용은 외래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어 표기법을 참조하기보다는 표준사전의 표제어 등재 여부, 표기, 발음 등을 확인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표준사전이 아닌 새로운 차원의 표준사전이 필요한 것이다. 특별히 외래어만을 위해서라면 국립국어원에서 '외래어 사전'을 따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5.1. 현실음을 반영한 표제어의 표기

외래어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사전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역시 현실음을 반영한 표제어의 표기이다. 박동근(2014)에서는 웹 언어 자원을 활용하여 현재의 외래어 표기법이 현실 발음을 고려한 표기 규정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현재 외래어 표기법의 근간이 되고 있는 '1음운 1기호 원칙, 어말의 7종성 표기 원칙, 파열음의 된소리 표기 금지 원칙'들이 표기

실태에서는 지켜지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웹 언어 자원을 활용한 실태 조사[25]를 통하여 2004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표기 실태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개인이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면 국립국어원이라는 기관에서는 훨씬 광범위하고 다양한 조사를 할 수 있을 테고 그 결과[26]를 토대로 그에 걸맞은 현실적인 표제어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케익→케이크'에서 '케이크(38.29%), 케익(47.63%), 케잌(14.08%) 2013년 표기 실태'[27]와 같은 사전을 바라는 것이고 이렇듯 실제 언어 사용자들의 실태를 반영한다면, 현행 '개그(gag), 도그(dog), 불도그(bulldog)'와 같은 획일적인 규범에서 '개그, 독/도그(혹은 도꾸), 불독'과 같은 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규범[28]이 형성될 것이고. '팬티를 팬치로 인정해야 한다는 비아냥'(김상준, 1996:68) 때문에 '센티'를 '센치'로 못 쓰는 과오도 없어질 것이다. 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지면 쓰기 생활이 정말 엉망진창이 될까? '짜장면'도 쓸 수 있으니 '돈까스, 뻐스, 까스'로 표기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많은 대중이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 사전을 통해 확인되었으니 그냥 그렇게 쓰면 된다.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버쓰, 뻐쓰'로 표기를 하면 어떨까? 외래어 표기법이라는 규정이 없어졌으니 표준어가 아니라는 손가락질을 당할 염려는 없다. 그러나 언어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무도 강제하지 않았지만 "'버쓰' 또는 '뻐쓰'의 표기는 상대적으로 빈도가 너무 낮아 제시하지 않았다."(박동근, 2014:81 각주 17)라고 할 만큼

---

25) 이기황(2006)에서 더 먼저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단어의 사용 빈도 조사를 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기러기 아빠, 오노스럽다, 꽃히다'의 용례를 분석하였는데 그 분석 방법으로도 외래어의 용법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26) 박동근(2014:89) "적어도 국어사전에 수록된 외래어에 대해서는 언중의 표기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며 상당수는 이에 따른 재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하고 있다.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는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벅찬 사업이므로 국립국어원에서 해야 할 것이다.

27) 표기 및 괄호 안의 수치는 모두 박동근(2014:78)에서 취하였다.

28) 신지영(2011:126)에서는 "'민'의 언어 현실이 '관'에 의해 정리되어 '민'이 따를 수 있는 어문 규범을 '관'이 정립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일반 표기에서 도태되는 것이다.

현재의 표기 실태 조사를 보면, '버스'가 '뻐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표기 빈도[29]를 보인다. 이는 현실적으로 /뻐스/라 발음을 한다고 해도 현재의 표준 표기인 '버스'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이고 '뻐스'라는 표기는 너무나 핍박[30]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에 외래어 표기법이 폐지된 이후에 같은 실태 조사를 한다면 어떤 변화를 보일지는 예측할 수 없다.

'커피숖, 슈퍼마켙, 케잌, 테잎'[31] 등의 표기는 '/커피쇼비/, /슈퍼마케시/, /케이기/, /테이비/'와 같은 주격 조사 연결형의 발음이 지배적이라면 또 단독형의 발음 역시 /커피숍/, /슈퍼마켇/, /케익/, /테입/이라면 교육을 통해 점차 'ㅂ, ㅅ, ㄱ' 받침 표기를 권유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단독형으로 '커피숖'을 쓰고 싶다고 해도 /커피쇼비/, /커피쇼블/에서는 '커피숖'을 끄집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5.2. 표제어의 발음 표기

표제어의 표기 문제와 함께 발음 문제도 새로운 사전에서는 적절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일단, 외래어 표기의 현실화는 어느 정도 발음의 현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 내가 [짜장면]이라 발음하고 '짜장면'이라 쓰면 된다는 것은 사전에 있는 '짜장면'을 보고 누구나 /짜장면/이라고 하면 된다는 것이다. '뻐스, 까스, 땜, 꽁트' 모두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모든 발음 문제가 이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사전에 외래어 등재어 및 외래어가 포함된 등재어에 발음란[32]을 두어 고유어나 한자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외래어 표기법의 폐지로 인하여 '로보트'가 등재될 경우에는 표기와 발음이

29) 버스 99.82%, 뻐스 0.18%

30) '너는 다 큰 놈이 우리말도 제대로 못 쓰느냐'는 질타는 불을 보듯 환하다.

31) 박동근(2014) 77쪽부터 79쪽에 걸쳐 나오는 표기의 예들이다.

32) 현재 표준사전에는 외래어가 조금이라도 비치는 모든 등재어에는 발음 정보가 전혀 없다.

일치[33]하므로 특별한 발음 정보가 필요 없으나 '로봇'에는 '옷'과 마찬가지로 '로봇[로볻], 로봇만[로본만]'[34]이라는 발음 정보를 주어야 한다.

이번에는 외래어와 한자어 혹은 외래어와 고유어로 이루어진 복합어에 표기와 발음이 얽혀 있는 문제를 살펴보자. 예를 들어, '로봇학(robot學)'은 발음이 분명히 [로보탁]이다. 그런데 발음이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외래어가 섞였다고 해서 외래어 표기법의 폐기를 근거로 '로보탁'이라고 표기를 할 수는 없다. 형태소별 표기 원칙을 지키자면 '學'은 항상 '학'으로 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로봇학'의 발음란에는 [로보탁]이 표시가 되어야 하고 '로봇학만[로보탕만]'이라는 발음 정보도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외래어와 고유어로 이루어진 '히스테릭하다'를 '히스테리카다'로 표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혹시 먼 훗날, '히스테릭하다'에서 '하다' 부분의 어원적인 의미를 일반 언어 사용자들이 상실하게 된다면 그때는 '히스테리카다'로 표기를 해도 이상할 일은 없다. 그러나 현재라면 '히스테릭하다'로 표기하고 발음란에는 [히스테리카다]가 들어가 있어야[35] 한다. '북유럽'을 보자. 한자어와 외래어의 복합어로서 발음상 'ㄴ 첨가[36]'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표기는 '북유럽'이 될 테고 발음란에는 [붕뉴럽/부규럽]으로 표시해 주어야[37] 한다. 이처럼 외래어 표기법의 폐기는 현재의 표준사전과는 다른 '훨씬 더 많은 언중들의 외래어 사용 실태를 있는 대로 음성학적으로 관찰하여 정리'(유만근, 1996:115)한 정보를 지닌 사전[38]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

33) 여기서 발음이 일치한다는 것은 음소 차원에서의 일치를 의미한다. 음성 차원에서는 표기와 발음이 다르나, 국어사전에서는 그렇게까지 발음을 세밀하게 밝혀 줄 필요는 없다.

34) 표준사전에서는 'ㅅ' 말음 명사에 단독형과 조사 '만' 결합형의 발음을 제시한다.

35) '로맨틱하다, 에로틱하다'도 같은 경우이다.

36) 'ㄴ 첨가'는 발화자에 따라 규칙의 적용이 다르게 나타나는 수의적 규칙이다.

37) '남유럽, 동유럽'도 마찬가지로 취급해야 할 단어들이다.

38) 변정수(2011:101)에서는 어문 규범으로서의 '표준어 규정' 자체를 폐기하자는 주장과 함께 표준어에 대한 정보는 사전에 모아 놓는 것으로 족하며 특정한 어휘가 표준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개별적인 사전 편찬자들이 판단에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6. 두 가지 남는 오용

6.1. 발화 즉 발음 측면에서의 오용

외래어를 한국어로 발음하지 않고 외국어로 발음하는 것은 대단한 오용이고 오류이다. 첫 번째로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f], [v]를 원음 그대로 발음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한글로는 절대로 [f], [v]를 정확히 표기해 낼 수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나마 가까운 'ㅍ, ㅂ'으로 표기를 하는 것이다. 가끔 일반 언어 사용자 가운데에는 '핀라드'보다 '휜란드'가, '에펠탑'보다는 '에훼탑'이 원음에 더 가까운 표기라는 주장을 하는데, 원어민 화자에게는 모두 원음과 먼 발음이다. 두 번째 예는 '오렌지'이다. 이것을 [어륀지]라고 마치 영어에 가깝게 하는 것은 올바른 한국어 발음이 아니다. '파리'를 [빠히]로 마치 원어를 발음하듯이 하는 것도 올바른 한국어 발음이 아니며 그것을 영어식대로 발음하자면 [패리스]가 되어야 하는데, 모두 올바른 발음이 아니다. 외래어는 한국어이므로 한국어 표기에 따른 발음을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외래어 발화의 오용이다.

6.2. 쓰기 즉 표기 측면에서의 오용

외래어는 한국어이므로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 외래어를 원어로 표기하는 것은 대단한 오용이고 오류이다. 다음의 예들은 모두 외래어는 아니지만 영어, 프랑스, 독일어, 이탈리어, 스페인어를 위한 로마자 표기와 일본어를 위한 일본어 글자 표기의 예들이다.

영어: usb, mp3, coffee, salad, TV
불어: café, jardin, salade, école
독일어: Bier, Weizen
이탈리아어: pizzeria, mare

스페인어: casa, vino, tapas
일본어: おでん, かけうどん, いざかや/居酒屋

필요한 경우, 한글 표기를 한 후 괄호 안에 원어를 보충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으나, 한글로 표기를 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미 한국어임을 포기했다는 것이고 아무리 널리 알려진 단어들이라고 해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한국어 일반 사용자가 얼마나 많은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실상 오용이라기보다는 한국어의 테두리 안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표기이나 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횡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각한 문제는 신문, 방송 등의 언론과 심지어 공공 기관에서 외국어 글자를 민낯으로 내보인다는 것이다.

신문, 방송: DJ, YS, JP, TK, KBS, MBC, SBS, JTBC, YTN, TV, PD, SPORTS, SNS
공공 기관: KT&G, KT, KDI, HOMETEX

대부분 약자이긴 하지만 일반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언론 및 공공 기관이라면 이런 표기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 그리고 비록 브랜드라고는 하지만 전문가가 만든 'I·SEOUL·U'는 그 가치는 둘째 치고 표기만 봤을 때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영어를 모르는 사람[39]들은 '아이 서울 유'로 읽지도 못하고 편지에도 쓸 수 없다. 심지어 서울시 누리집에는 '아이 서울 유'라는 한글 표기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심각한 오용이고 오류이며 횡포다.

39) 한글을 모르는 노인들에게는 지금이라도 한글을 교육해야 한다. 그러나 영어 알파벳을 지금 가르칠 수는 없다. 영어가 끝나면 일본어, 중국어 순으로 가르칠 것인가?

7. 남은 문제

7.1. 표준사전의 외래어 등재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 언어 사용자들은 표준사전에 의지해서 어떤 단어가 외래어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 표준사전에는 '버스 01'과 '버스 02'가 있다. 그중에 버스 02는 우리가 흔히 아는 교통수단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외래어이다. 그런데 버스 01은 해양 부분의 전문 용어로서 '선박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선박이나 육지와의 사이에 남겨 두어야 할 공간. 또는 항만에서 배를 매어 두는 위치'이다. 물론 버스 01이 외래어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문 용어 분야가 아닌 일반 언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두 개의 버스가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전의 표제어를 결정지을 때는 아무래도 사용 빈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은데, 버스 01은 아무래도 버스 02와 어형이 같기 때문에 등재된 것이 아닌가 싶다. 표준사전에 외래어로 등재되는 것은 일반 언어 사용자에게는 외래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다. 어떤 방식으로 외래어 표제어를 골라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찰이 다음 연구에 이어져야 한다.

7.2. 이른바 콩글리시

콩글리시는 사전의 정의로는 '한국식으로 잘못 발음하거나 비문법적으로 사용하는 영어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그 정의 안에는 영어와 다른 뜻으로 사용되거나 혹은 영어이지만 영어 단어의 목록에는 없는 단어들을 모두 지칭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커닝, 핸들'은 영어에도 있는 단어지만 '부정행위, 자동차 운전대'라는 뜻은 한국어에만 있다. '핸드폰, 모닝콜, 아이쇼핑, 포켓볼, 골인' 등은 비록 영어로 구성된 단어들이지만 영어에는 없는 한국식 영어 단어이고 그 독특한 의미 역시 한국어에서만

통한다. 최근, 주변에서 또는 방송에서 흔히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모태솔로'이다. 뜻은 '태어난 이후 한 번도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남자 또는 여자'이다. 홀로라는 의미로 '솔로'가 붙은 것 같지만 그것이 영어에서 들어온 외래어[40]라고 본다면, 실제 영어로는 '싱글'이 맞다. 더 이상 퍼지기 전에 그나마 영어에 가까운 '모태싱글'로 바꾸기 운동을 하여야 하는가? 그런데 모태싱글이 아닌 모태솔로가 자리 잡게 된 까닭[41]은 무엇일까? 발음상 차이 때문일까? 싱글보다는 솔로가 더 흔하고 널리 알려진 단어이기 때문일까? 이런 여러 가지 콩글리시에 관련된 내용들도 이 글에서는 전혀 다루지 못하였다. 콩글리시에는 어떤 종류가 있어서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표준사전에 등재하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8. 결론

외래어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외국어와의 구분에서 시작된다. 외래어의 오용, 외래어의 순화, 외래어의 음운론적 특성, 외래어의 품사 등이 모두 그러하다. 그러나 자생적인 고유어나 오랜 세월 동안 익어온 한자어와는 달리, 외래어는 어느 순간에 우리 주변에 자리 잡아 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관찰이 필요하다. 언어 현실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외래어와 외국어의 구분, 구분된 이후 목록

40) '솔로'의 원어인 이탈리아어인 것은 틀림없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41) 김해연(2007:48)에는 "'몰래 camera'와 같은 한국식 조어에도 여러 의미 성분 중에서 한국인에게 현저하게 인식되는 의미 성분을 반영하여 어휘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저하게 인식되는 의미 성분'에 대한 연구로 '콩글리시' 같은 어휘가 어떻게 조성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안에 들게 되는 외래어의 표기 및 발음을 결정지어야 한다는 뜻이다.

획일적이고 편의적인 규정에 의한 표준 외래어는 실제 언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언어 현실은 복잡다단하기만 한데 규정으로는 두어 줄로 요약해 두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급진적인 사고의 전환에 의한 외래어 표기법이라는 규정의 폐기 및 외래어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은 새로운 외래어 사전의 구축에 대한 더 많은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

참고 문헌

강신항(2004), “외래어가 국어에 끼친 공과”, ≪새국어생활≫ 14-2, 국립국어원, 23-58쪽.

김민수(1973), ≪국어정책론≫, 고려대 출판부.

김상준(1996), “외래어의 발음 문제”, ≪새국어생활≫ 6-4. 국립국어원.

김수업(2007), “전문 용어의 순화 방안”, ≪새국어생활≫ 17-1, 국립국어원, 89-101쪽.

김슬옹(2008), “외래어표기법의 된소리 표기 허용에 대한 맥락 잡기”, ≪새국어생활≫ 18-4, 국립국어원, 71-86쪽.

김하수(1999), “한국어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점”, ≪배달말≫ 25, 배달말학회, 247-259쪽.

김해연(2007), “콩글리시 어휘의 유형과 형성의 인지적 동기”, ≪담화와 인지≫ 14-3, 담화인지언어학회, 25-52쪽.

박동근(2014), “외래어 표기 선호도의 변화 양상 연구 - 웹 언어 자원을 활용하여-”, ≪언어와 문화≫ 10-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65-93쪽.

_____(2016), “표준 외래어 정립을 위한 정책 분석과 대안”, ≪한말연구≫ 40-2, 한말연구학회, 87-112쪽.

배주채(2015), “국어 발음 정책과 발음 교육의 방향”, ≪새국어생활≫ 25-1, 국립국어원, 45-62쪽.

변정수(2011),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새국어생활≫ 21-4, 국립국어원, 99-102쪽.

송철의(1997), “외래어의 순화방안과 수용대책”, ≪외래어 사용 실태와 국민 언어 순화 방안≫, 국어학회, 1-15쪽.

신지영(2011), “어문 규정 폐지를 통한 어문 규범의 현실화 정책을 펼 때”, ≪새국어생활≫ 21-4, 국립국어원, 121-126쪽.

신형욱(1996), “외래어 표기법과 나의 의견”, ≪새국어생활≫ 6-4, 국립국어원, 137-160쪽.

兪萬根(1996), “外國語를 歸化시켜 국어다운 外來語로! - 現地原音式/音素對應式은 言語學的 沒常識-”, ≪새국어생활≫ 6-4, 국립국어원, 105-121쪽.

이기황(2006), “신어의 정착과 낱말 용법의 변화”, ≪새국어생활≫ 16-4, 국립국어원, 47-62쪽.

이은경(2015), “외래어의 표준 발음과 어문 규범”, ≪비교문화연구≫ 38,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405-431쪽.
임동훈(1996), “외래어 표기법의 원리와 실제”, ≪새국어생활≫ 6-4, 국립국어원, 41-61쪽.
임홍빈(1996), “외래어 표기법의 역사”, ≪새국어생활≫ 6-4, 국립국어원, 3-40쪽.
정희원(2004), “외래어의 개념과 범위”, ≪새국어생활≫ 14-2, 국립국어원, 5-22쪽.
조민아·홍종선(2015), “방송 언어의 외래어·외국어 사용 실태와 개선 방안 -주말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어문교육≫ 34,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9-52쪽.
조태린(2016), “성문화된 규정 중심의 표준어 정책 비판에 대한 오해와 재론”, ≪국어학≫ 79, 국어학회, 67-104쪽.
차재은(2007), “외래어의 표준 발음 문제에 대한 고찰”, ≪한국어학≫ 35, 363-390쪽.
최용기(2001), ≪언론 외래어 순화 자료집≫, 국립국어원.
최혜원(2001), ≪외래어 발음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_____(2002), ≪표준 발음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_____(2011), “표준어 정책의 새로운 방향 -복수 표준어 발표의 경과와 의의-”, ≪새국어생활≫ 21-4, 국립국어원, 77-94쪽.
한명숙(2016), “대학생들의 오래어 표기와 발음의 상관성 연구”, ≪한말연구≫ 41, 한말연구학회, 205-240쪽.